

연구위원 대답

## 목회자를 위한 세계관 연구모임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첫 모임: 2010년 6월 28일(월) 오후 7시 부터  
장소: 이촌동 사무국 402호  
대상: 관심있는 회원은 누구나



장갑덕(전국 대학교회협의회 대표, 대전 카이스트교회 담임목사)

### 1. 목사님은 언제부터 기독교 세계관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시절 한때 우울증에 걸려 자살을 꿈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잘못된 세계관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세계관은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세속적 가치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의 내면에는 잘못된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에 의한 행동이 많은 시간 저를 넘어지게 하였고, 때때로 자살에 빠지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후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러한 저의 생각과 충동들이 고쳐졌습니다. 구원받은 후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였는데,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게 된 이유는 세속적 세계관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으로 인하여 겉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것을 후회하면서 결국 마지막으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세계관)을 주입시켰다는 것입

니다. 즉 잘못된 세계관이 주입될 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혔고 결국 잘못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저는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1)유명 기독교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 2)기독교 기업인들의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 활동, 3)기독교 정치인들의 비성경적 정책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신앙적 열심(기도, 예배, 찬양, 헌금 등)은 있지만 삶을 보면 여전히 비신앙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많은 기독교 연예인이 자살을 하고 기독교 기업인들의 기업 활동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 의원인데 그들의 정치적 활동을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여전히 세속적 세계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잘못된 삶의 스타일은 목회자들의 잘못된 세계관에 의한 가르침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숫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교인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성경적 세계관에 대하여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 즉 모든 영역에 대해서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성경적 세계관을 갖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성공과 축복만을 강조했지,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삶에 대하여 잘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세속적 교육기관에 맞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마치 적에게 우리 군사들의 교육을 맡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안타까워 하면서 무엇보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공부하고 적용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되었

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 세계관에 의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을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세계관(world-view)이라는 말은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 즉 세상을 보는 관점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혹은 다른 표현으로 ‘지각의 틀(perceptual framework),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이고, ‘삶에 대한 시각(vision of life)’ 이요, ‘삶을 위한 시각(vision for life)’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봉호 교수께서는 “세계관이나 그 배경을 이루는 종교적 신앙이 항상 의식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의식되지 않은 세계관이 구체적인 삶과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기독교 세계관(Christian world-view)이란 그리스도인이 가진 세계관(Christian's world-view)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세계를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이해한 내용을 둘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 **목회자들은 왜 성경적 세계관을 배워야 합니까?**

첫째는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

연구위원 대답

세계와 그 삶의 과정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반응해야 하는 일로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전에 어떤 존재들이었으며,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된 후에 어떤 사람들이 되었으며, 따라서 하나님과 세계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 생각과 행동은 바른 가르침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목회자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명확히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 세계가 바로 자신들이 목양하는 성도들이 살고 활동해야 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목회자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바르게 정립하여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더 홈즈는 “세계관은 행동의 지침으로서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계관의 필요성으로서 “사유와 삶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선한 생활을 정의하고 인생의 희망과 목적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성경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세속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실천(orthopraxis)을 위한 성경적 세계관 교육이 필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세계관은 그리스도인들의 전 삶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즉 기업과 정치, 문학과 예술, 학문과 교육, 가정과 삶 전체,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부분에까지 미쳐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배워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문체투성이의 현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위해, 그리고 이 혼란에 빠진 세상 사람들을 위해 바른 세계관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과 사명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유행처럼 번져 가는 포스트 모던적 상황이 기독교 세계관을 명확히 하도록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가능하게 하는 기독교적 관점이 과연 무엇이고, 그런 관점의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다음 세 가지 특징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1) 중생한 사람의 영적인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중생한 사람의 영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세계관을 외문화한 것입니다.

**2)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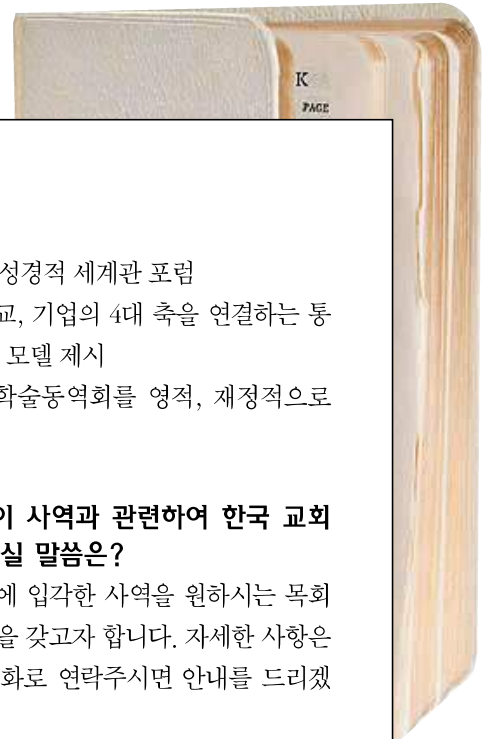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을 채택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적 관점(biblical perspective)을 가지고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윌터스는 “우리의 세계관은 성경에 의해서 형성되고 점검되어야 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형성된 세계관을 가져야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계시를 통한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만이 일반 계시를 비로소 제대로 보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른 세계관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구속사는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의식하고 사는 것처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을 의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영역에서 통치권을 행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관련하여 우리의 속제는 무엇인지요?**

- 1) 성경적 세계관의 구체적인 형상을 그려내는 것
  - 2)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각 학문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의 제시와 그 실천
  - 3)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활동과 삶
- 만일 어떤 잘못된 사람들에 의하여 잘못된 세계관이 그 지역과 민족의 문화를 지배하게 되면, 그 세계관은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속적인 세계관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 시스템에 의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속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빠져 들어가고 작동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빠져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끌려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출해 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양들을 목양하는 목자들인 목회자들은 반드시 사역의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목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의 전 영역에서 세속적 세계관에 굴복하지 않고 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삶을 살음으로서 강력한 복음의 전파자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한 성경적 세계관을 펼쳐 나가기 위한 현실적 대안들은 무엇입니까?**

- 1) 목회자를 위한 정기적인 성경적 세계관 연구모임

- 2) 목회자를 위한 성경적 세계관 포럼
- 3) 가정, 교회, 학교, 기업의 4대 축을 연결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 및 모델 제시
- 4)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영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

**그러면 끝으로 이 사역과 관련하여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하실 말씀은?**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사역을 원하시는 목회자들을 위한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시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전 화 : 02-3272-4967/ 010-7309-8283.

메 일 : gjchl@yahoo.com

홈페이지 : www.worldview.or.kr

담당자 : 장갑덕 목사

모임예정일: 6월 28(월) 오후 7시,

장 소 : 이촌동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세미나실

주 소 : 140-909 서울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402